

예래휴양주거단지 인허가 항소심도 “무효”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제주도 항소 기각 “道·서귀포시 행정처분 15개 모두 효력 없어” 토지수용 당한 지역주민 연이은 소송 예고

서귀포시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5일 원고인 예래단지 전 토지구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전 판결은 2015년 3월 토지구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예래단지가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토지구들은 더 나아가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등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라며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제주지방법원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설명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아 그룹 간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

송과 원토지구 토지 반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연이은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예래단지 인허가 절차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JDC가 진행했던 토지수용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월 예래단지 토지구 전모(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는 예래단지 사업으로 강제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반환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예래단지 부지 74만여㎡ 가운데 이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약 42만㎡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며 상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래휴양주거단지는 지난 2003년 사업시행예정자로 JDC가 지정됐고,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07년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2년 뒤인 2009년에는 사업자가 말레이시아 버자아그룹이 출자한 (주)버자아리조트로 바뀌었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지난 2009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조성사업이 진행되다 법정다툼으로 중단된 예래휴양주거단지 전경.

한리일보 DB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철폐하라”

집배노조, 어제 결의대회

제주지역 집배원들이 장시간 중노동에 노출된 집배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건설준비위원회(이하 집배노조)는 5일 제주시청 앞에서 '고(故) 이길연 집배원 추모제 및 제주지역 집배원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집배노조는 이날 지난해 9월 5일 공무상 재해를 당해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출근할 것을 압박받자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광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길연 집배원을 추모했다.

집배노조는 “고인의 사망은 산재은 폐와 출근중용으로 인한 우체국 집배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불러온 참사”라며 “올해만 우체국에서 우정노동자가 과로와 과로자살, 업무 중 사고로 18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장시간 중노동을 하면서도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근무했고, 사고 후에도 서광주 사업장의 문제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못 했다”며 “이는 현업에서 일하는 모든 집배원들의 공통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집배노조는 이에 따라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철폐 ▷산재은폐 출근중용 직장감질 규탄 ▷주 52시간 무료노동방관 중단 ▷토박이택배 완전 폐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조차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정경기자 jungkxon@ihalla.com

해수욕장 폐장해도 일정 기간 안전요원 배치

물놀이 금지 현수막 설치 등 제주도 '후속 안전대책' 마련

속보-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피서객이 물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본보 9월 2일자 4면)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개소와 하천·계곡 8개소, 연안해역 18개소 등 37개 지역에 대한 '후속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일을 끝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이 종료되면서 소방·해경·민간 안전요원이 철수될 예정이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해수욕장이 폐장됐음에도 피서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

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안전요원 미상주 지역에 대한 물놀이 금지 및 안전현수막 설치 ▷폐장 후 3-5일간 민간통제요원 상주 배치 ▷상가·각종 홍보물 등 시설물 철거 ▷쓰레기 처리 ▷화장실·샤워장·탈의실·음수대 정비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경에서는 해변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소방은 인명구조할 일제조사를 통해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 개장 때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더 높다”며 물놀이 자체를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2살 배기 차에 치여 숨져

지난 4일 오후 2시24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모 목장 주차장에서 김모(25·여·경북)씨가 운전하던 렌터카에 2살 배기 A양이 치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119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A양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물놀이 사고 20대 남성 구조

5일 오전 11시55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지리 인근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다.

이날 박모(24)씨는 갯바위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조류와 바람이 강해져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경기자

마라도 선착장서 관광객 2명 물에 빠져 사망

바지선 선착장 사진 촬영 명소 관광객 자주 찾아 높은 파도 등 사고 위험 높지만 안전장치는 미흡

5일 국토 최남단 섬 마라도 해안에 있는 바지선 선착장에서 관광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마라도 주민이 이날 오후 1시30분쯤 마라도 신작로 선착장 내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며 마라도출장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500t급 경비함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오후 2시 10분쯤 마라도 신작로 선착장 남서쪽 30m 해상에서 이모(52·태안)씨와 김모(50·여·태안)씨 등 익수자 2명을

발견해서 인양했다. 이씨 등 2명은 발견 당시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순항에서 서귀포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해경은 선착장에서 있던 이씨 등 2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높은 파도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었음에도 현장에는 별다른 통제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바지선 선착장은 평소 관광객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많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위험 안내판 하나 외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2년 8월 6일에도 이 선착장에서 일가족 3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경측은 “현재 마라도출장소에 직원을 배치해 근무하고 있다”며 “여객선 승하차 시 안전조치 및 해안가 일대를 순찰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화물선이 계류하는 곳으로 여객선이 승하차 하는 선착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 2016년 마라도 출장소 직원을 철수 시켰다가 지난해 4월 다시 의경 2명과 해양경찰관 1명을 배치했다.

조흥준기자 chi@ihalla.com

“벌초시 야생진드기 조심하세요”

5일 현재 도내 SFTS 환자 9명 발생·1명 사망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벌초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가무시증을 유발시키는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역은 환경 특성상 야산 가축방목장이 많고 여름 등 야외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제주지역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려 SFTS에 감염된 환자는 9명이며,

그 중 1명이 사망했다. 쯤쯤가무시증 감염환자는 10명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상태.

제주도는 “진드기 매개질환의 예방 핵심은 없기 때문에 벌초, 오름 등반 같은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야외활동 후 검은딱지가 발견되고 두통, 발열, 오한, 구토,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채해원기자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2,3년생
유라(극조생)	6년생
감평(레드향)	2,3,4,5,6년생
황금향	5년생
천혜향	2,3,4년생
한라봉 M16	6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19년 봄 출하 예정 묘목 분양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레몬
아마나스 · 땡유자 · 아수미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농장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영와로 서광주유수소에서 모슬포방향 300m 위치)

종자업 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3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유라실생 1년생
- 원터프린스 1년생
- 남진해(나스미) 1년생
- 한라봉(마나베데고) 4년생
- 일남1호, 히로시마7호(극조생) 4년생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기능성 밀감 4년생
- 천전기(와대) 온주 천지향 5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종은 직접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서귀종묘

010-6677-5753

감귤묘목

- * 아스미 당도 17.4브릭스 1,2,3년생
- * 유라실생 1,2,3년생
- * 유라조생 (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 * 궁천 5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7년생
- *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 *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 * 한라봉 7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그 외 많은 품종 있습니다.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